

나를 대신하신 그 자리

기도

찬 송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말 씬 마태복음 26:36-39

-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겔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 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중물

신학교 교수였던 제리 크롤 목사님의 아들 데이비드 크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내장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희귀병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수혈을 받아야만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 받고 말았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고 만 것이지요.

이제 상황이 점점 악화돼 병원에서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리 크롤 목사님의 마음 한 구석에서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겨왔는데 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물 사이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리, 지금 네 아들은 병원에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죽어가고 있지만, 내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모든 고통을 온 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네 아들은 지금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위로 속에 죽어가고 있지만 내 아들은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제자들도 배신하고 나에게도 버림받은 채 죽어갔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크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도 내가 감사할 여지가 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는 나에게 마땅한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나를 놓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 1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나요? (36,39절)
- 2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37,38절)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 3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 4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하는 기도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함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맹세코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주기도문